11 제20194호

봄마중 설레는 광양

맛 보러 오세요…내일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

인체 유익 무기질 다량함유 제례악 공연 등 다양한 행사

"대한민국 원조 광양 고로쇠 맛 보러 오세요"

광양시는 "제36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 제를 5일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개최한다"고 3일 밝혔다.

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는 백운산 고로 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와 광양시민의 안 녕, 그리고 지역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매 년 경칩일에 열리고 있다.

약수제는 옥룡면 도선풍물단의 길놀이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, 광양시립국악단의 제례악 공연, 12개 읍·면·동의 화합과 상생 을 기원하는 합수제, 초헌관·아헌관·종헌 관으로 구성된 제례, 음복 순으로 진행된다.

제례는 광양향교(전교 정용성)의 주관 으로 헌작, 축문 등 기본 제례형식에 시립 국악단(지휘 강종화)의 전문 제례악을 가 미해 제례의 품격과 예술성을 높이기로

특히 이날 행사에는 약수협회 회원들이 참석해 도선국사 골리수(骨利水)로 불리



광양시립국악단이 지난해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열린 제35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에서 제례악 공연을 펼치는 모습.

는 대한민국 원조 명품 고로쇠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수액 채취 기자재 청결상태 유지 및 정제시설 확충을 통한 최고 품질 의 고로쇠 약수 생산을 다짐할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원조 고로쇠인 백운산 고로쇠 약수는 칼슘, 칼륨, 마그네슘, 망간 등 인 체에 유익한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 으며, 게르마늄이 타지역보다 많아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이기섭 광양시 문화예술팀장은 "소비 자들이 안심하고 백운산 고로쇠를 마실 수 있도록 호스세척 공급 사업을 운영하 는 한편 0.5리터 고로쇠 소포장 용기도 생산중에 있다"면서 "특히 생산자 이력 및 QR코드가 삽입된 라벨 부착 등 원조 고로쇠의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"고 밝혔다.

/광양=김경원기자 kkw@

꽃 보러 오세요…18~27일 열흘간 매화축제

편의시설 확충 등 준비 만전 주말 일부 주차장 유료화도

광양시가 광양매화축제의 성공 개최 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. 특히 광양매화축제장을 찾은 관광객 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.

3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19회 광양매 화축제를 앞두고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을 중심으로 각 프로그램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.

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제기간 중 주말 4일 (19~20일, 26~27일)은 중마터미널~ 진월면 망덕포구~축제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1일 6회 운영할 계획이다.

또 축제장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 때문 에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해 처음으로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다.

주말 4일간 매화주차장이 유료 운영되



며, 요금은 대형버스는 1만원, 중·소형 차량은 3000원이다. 시는 주차장 이용 금 액만큼 쿠폰을 지급하고, 쿠폰은 축제장 내 지정된 음식점이나 특산품 구입에 사 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시는 불법노점상 단속과 환경정비, 화 장실 청결 관리 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.

이와 함께 축제 홈페이지를 정비해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 안전을 위 한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현장점검도 세

한편 올해 광양매화축제는 순수 꽃구 경 상춘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안내 서비스에 주력하고, 공연은 광양읍, 중마 동 등 도심권에 분산 개최한다. 축제 개 막행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영호남 화 합의 상징인 남도대교에서 섬진강을 끼 고 있는 구례군과 하동군, 광양시 3개 시·군 주민이 모여 '용지 큰줄다리기' 대 결로 시작된다. /광양=김경원기자 kkw@

광양시, 올해 양질의 일자리 3000개 만든다

맞춤형 교육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유치 총력

광양시가 올해 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한다.

3일 광양시에 따르면 민선 6기 4년 동 안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 ▲ 전략적 투자유치 ▲관내 기업체 직원 채 용 ▲직업능력개발 훈련 ▲취업지원서 비스 ▲사회적경제기업 육성 ▲중소기 업 청년인턴 ▲기타 고용서비스 등 7개 분야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추진중이다.

올해는 철강·항만 관련 산업 경기침 체에 따른 어려운 고용여건을 딛고 양질 의 일자리 3000개 이상을 반드시 창출 해낸다는 계획이다.

공공부문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 춤형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용접분야, 기계정비분야 등 4개 부문에 서 26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. 또 광양희망일자리센터, 여성새로일하 기센터, 대한노인회취업센터 등 취업지 원센터를 통해 700여명 이상의 구직자 가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와 상담,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, 사회적경 제기업 6개를 신규 지정해 3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.

시는 민간부문에서는 안정적 산단개 발과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.

시는 이를 위해 기업체에 대한 자금지 원 등 지원시책을 통해 인력수급여건을 개선하고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일자 리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과

취업전략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.

올해는 특히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 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고, 경쟁력 있 는 중소기업에서 우수 청년인력이 좋은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200여명을 발굴·지원한다.

이 밖에도 구인・구직 미스매치 격차 를 줄이기 위해 구인·구직 만남의 날을 수시 운영하고, 기업체 채용대행과 동행 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기로 했다.

이정희 광양시 투자유치과장은 "일자 리 창출을 위해 광양상공회의소, 광양 제철소외주파트너사협회, 각 산단협의 회, 대학교, 특성화고, 맞춤형교육기관 등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민·관· 산·학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"고 말했다. /광양=박영진기자 pvi4079@

광영·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박차

22일까지 2차 환지공람

광양시가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 광양 광영·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집 중하고 있다.

2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영동과 옥곡 면 사이 의암산과 의암마을을 포함한 54 만 6161m 규모의 택지를 개발해 6800 여명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지난해에는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 민설명회와 1차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12월 1차 환지계획공람을 완료했다.

토지소유자의 공람의견을 적극적으 로 수렴해 검토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까지 2차 환지공람을 추진한다. 2차 환 지공람은 1차 공람의견에 대한 검토 결 과설명과 환지면적, 위치, 과·부족, 청 산금에 관한 내용 등을 공람하게 된다.

공람은 광영동에 소재한 광양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사무실에 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 며,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 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.



광영·의암지구 조감도

한편 광양 광영·의암지구는 광영동 과 옥곡면 의암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, 의암산 일대를 개발해 택지와 5만2000㎡의 체육공원을 오는 2018년 6 월까지 조성한다.

/광양=박영진기자 pyj4079@

공무원 선거 중립 실천 결의대회·특별교육 실시

광양시 공직자들이 4월 13일에 실시 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 거 중립 실천 결의대회 및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.

광양시는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모든 공직자가 모여 선거 중립의무 준수 및 선거 관여 방지 실천 결의대회를 가

광양시 공직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서 공정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솔선수 범하고, 각종 선거사무를 엄정하게 추진 하기로 다짐했다.

주요 실천내용은 ▲특정 정당이나 후 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▲선거운동에 관 여하는 행위 금지 ▲각종 선거 관련된



광양시 공직자들이 지난 2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선거 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열 고 있다.

사항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▲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

무 적극 협조 등이다.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이강식 광양시

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'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'를 주제로 한 특별 교육도 진행됐다.

/광양=박영진기자 pyj4079@

